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목록에 대하여

한미화 씨를 이어 김준목 씨와 함께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지면을 맡게 된 최성일 씨는 1996년 <출판저널> 기자로 출판 언론계에 들어와 <도서신문>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여러 지면에 북리뷰와 출판 시평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1·2』(2004), 『테마가 있는 책』(2004), 『미국 메모랜덤(살림지식총서010)』(2003), 『베스트셀러 죽이기』(2001) 등이 있다. ■ 편집자 주



최성일*

지난 3월 22일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교과별 독서지도 매뉴얼’을 놓고 말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둘러싼 쟁점은 교육계만의 숙제나 관심사가 아니다. 여기서 독서 교육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더구나 독서 기록을 2007년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벌써부터 과열 양상마저 빚고 있음에라.

어찌 보면, 출판계는 교육계보다 독서교육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교육 당국의 움직임에도 교육 주체나 학부모 못지않게 민감하다. 서울시 교육청의 독서지도 방안 역시 출판계 인사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출판인들은 특히 교과관련 추천도서 목록에 주목하였고, 목록에 포함된 일부 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글의 후반에 살펴보기로 한다.

도서관 목록과 출판사 목록

도서관의 문헌목록과 출판사의 도서목록은 같은 서지정보여도 그것의 구성과 성격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어느 번역서의 저작권 경고 문구 아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의 내용이다.

동화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 하인리히 호프만 박사의 더벅머리 아이 / 아니타 엑슈태트 지음 ; 심동미 옮김, — 파주 : 문학동네, 2005 p. ; cm. — (문학동네교양선)
원서명: “Der Struwwelpeter” ; Dichtung und Deutung
원저자명: Eckstaedt, Anita
ISBN 89-8281-935-5 03850 : 13000
853-KDC4
833.92-DDC21 CIP2005000214

출판사의 도서목록을 구성하는 서지사항은 CIP에 비해 단순하다. 간기(刊記)의 판권사항이면 너끈하다. 출판사의 도서목록을 기술하는 방식은 출판사마다 더러 차이가 나지만 책 제목, 저·역자, 출간연도, 면수, 가격 따위는 꼭 들어간다. 여기에다 판형과 ISBN을 추가한 문학동네의 방식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은 좀 복잡한 편이다. 아래는 문학동네의 기존 도서 목록에 준하여 위의 책을 나타낸 것이다.

동화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아니타 엑슈테트 지음 · 심동미 옮김

2005/신국판 양장본/울칼라 176쪽/값

13,000원/ISBN 89-8281-935-5 03850

다만, 여기서는 저·역자 이름과 부수적인 서지정보 사이에 오는 짧은 책 소개글을 생략했다. 제목 옆에 부제목 또는 원서명을 병기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기입하진 않을 것이다. 도서관 목록과 출판사 목록의 차이점을 보면, KDC와 DDC의 분류번호, 그리고 CIP번호는 CIP에만 있다. 출간지 표시도 그러하다.

그런데 책이 나온 지역을 명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선 큰 의미가 없다. 막말로 한국에서 출판된 책의 출간지는 서울과 파주, 둘 중 하나다. 그나마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서울에 국한하였다. 이러면 '칠곡(왜관) : 분도출판사'와 '대구 : 녹색평론사'가 섭섭해 하겠지만 말이다. CIP에 책값이 들어 있는 건 의외다.

어쨌든 도서관 문헌목록과 출판사 도서목록의 같으면서도 다른 구성요소는 두 목록의 상이한 목적을 반영한 걸로 보인다. 그것은 책을 찾아서 읽게 하는 기능과 책을 사서 읽게 하는 역할이다.

다양한 도서목록

출판사의 수명은 대저 한 세대를 넘기 어렵다. 30년 안팎이 창업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기에 딱 차는 기간이다. 이만한 이력의 출판사가 펴낸 도서목록은 묵직한 단행본을 방불한다. 1990년대 중후반에 선보인 몇 출판사의 도서목록이 좋은 예다. 『창립 29주년 범우종합도서목록

1966~1995』(범우사)에는 1,500종의 서지정보를 담았고, 나남출판의 도서목록 『나남커뮤니케이션스 1979-1996』은 414쪽에 이르며, 『한길사 도서목록 1976-1999』는 360쪽이다.

한편, 이에 못지않은 연륜과 출간 서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도서목록은 슬림하게 펴내는 출판사들이 있다. 문예출판사, 창비, 문학과지성사가 그러하다. 1966년 창업한 문예출판사의 2002년판 도서목록은 204쪽으로 앞의 세 출판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얇은 부피다. 창비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해마다 도서목록을 발행하면서 130~160쪽 선을 유지했다. 문학과지성사의 도서목록도 문예출판사나 창비와 비슷한 규모지만 꾸준히 나오진 않았다. 문학과지성사의 『도서목록 1975~1996』은 오랜만에 나와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하고, 기사는 기사로 말한다. 출판사는 출간도서 목록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덜 상투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대의 서재를 보여 주면 그대가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출간도서 목록은 그 출판사의 '색깔'과 '코드'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 전집의 작가와 저자가 드문 것처럼 출간도서의 수준이 고른 출판사도 거의 없다. 대부분 쪽정이가 하나 들은 섞여 있다. 지조를 지키지 못한 출판인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네 출판 여건이 강박하다는 얘기다. 국내 굴지의 단행본 출판사 민음사의 첫 책이 요가 관련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그러하기에 인문서적 전문 출판으로 '전향'한 어느 출판사의 '전력'을 끄집어내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총서목록 중에도 웬만한 단행본에 버금가는 중량급이 있다. 대우재단 학술사업 시행 24주년을 기념해 2000년대 첫 5년 동안 출간한 대우학술총서를 소개한 목록집은 미들급쯤 된다. 『대우 학술총서 2000-2004』(대우재단)는 2000년 이후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5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출간된 대우학술총서 110권의 개요와 서평기사, 그리고 추천도서 선정 내역 등을 담았다.

대우학술총서 목록집이 미들급이라면, 20년 전 '오늘의 사상신서' 100권 돌파에 즈음해 나온 『우리시대 출판운동과 오늘의 사상신서 101권 1977~1986』(한길사)은 헤비급이다. 서평집 형태로 꾸며 몸피가 컸다. 책의 앞쪽에 실린 당시 민족운동과 출판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글들은 자료적 가치가 있다.

헤비급에 속하기는 특정 분야 책의 명세를 수록한 목록집도 마찬가지다. 560쪽의 분량으로 1999년 첫 선을 보인 번역서 가이드 북 『미메시스』(열린책들)는 이듬해 672쪽으로 부피가 늘었다. 하지만 한 해의 번역서를 다채로운 기획기사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은 그걸로 끝이었다. 판매 부진이 그 이유. 부피에 비해 저렴한 책값(9,500원·12,000원)도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펴낸 『청소년 교양도서 목록 2004』도 특정 분야 도서목록집이다.

요즘은 추천도서 목록도 단행본화하는 추세다. 1980년대 이른바의 운동권 이념서적을 추린 『총류별 교양도서목록』(세계)은 이 방면의 원조. 증보판의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다. "지성인을 위한 독서안내서".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

이제 글의 서두에서 운을 댄,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교과관련 추천도서목록의 문제점을 짚어 볼 차례다.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책 선정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출판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3학년용으로 선정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중·고생에게 더 맞고, 고1용으로 제시된 『역사란 무엇인가』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깊이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자)

내가 보기에요 목록에 문제가 많다. 우선, 저자가 편중돼 있다. 한 저자의 책의 여러 권 추천되었다. <한겨레> 2005년 3월 23일자에 실린 중1에서 고1까지 국어·국사·과학·사회과 추천도서를 기준으로 하여도 두 권 이상 추천 받은 저자가 1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과거 민족민중문학권 작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채롭다. 박완서, 신경림, 박재구, 김용택, 안도현에 다 신영복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김용택 시인의 책은 『섬진강』(창비),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창비), 『강같은 세월』(창비), 『시가 내게로 왔다』(열린책들) 등 무려 네 권이나 된다. 『섬진강』이 나의 청년기 애독 시집이긴 하지만 시인의 다른 시집과 산문집까지 권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네 권 중 세 권이 중학교 국어과에 몰려 있는 걸로 봐서, 초등학교 시절 '김용택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와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 읽은 동화'에 친숙한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선정 실무자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박완서 소설가의 책도 세 권에 이른다. 단편소설 『자전거 도둑』(다림)과 산문집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한양출판)가 중학교 1, 2학년 국어과에 들어 있는 것은 무난해 보이나, 장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를 중1 사회과의 지리 영역에 배치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소설을 통해 6·25 전후 개성과 서울 지역의 사회상을 파악해 보라는 뜻인가. 하지만 고1 사회과 지리 영역에 시집 『강같은 세월』과 박재구 시인의 산문집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동방미디어)을 포함시킨 의중은 정말 모르겠다.

대립각을 이루는 책을 통해 균형감을 익히게 하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와 최병철의 『공자

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시어출판)는 사회적 의제로서 시효가 다 되었을 뿐더러 반론서가 '자백'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출처, 『베스트셀러 죽이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1. 154면 참조).

중2 사회와 역사 영역에 『이원복 교수와 함께 떠나는 새 먼나라 이웃나라— 이탈리아』(김영사)와 『유시민과 함께 읽는 유럽문화이야기 I, II』(푸른나무)를 나란히 추천한 것은 유럽을 보는 국내 우파와 좌파의 시각을 두루 접하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유럽문화이야기는 영국 라베라 출판사가 펴낸 『제노포브스 가이드』를 유시민의 색조로 옮긴 편역서다. 게다가 유럽문화이야기와 비슷한 시기 출간된 『이원복 교수의 진짜유럽 이야기』(두산동아)는 『제노포브스 가이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출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지식의 전도사』, 『말』, 1998년 9월호).

정작 맞상대가 필요한 책은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김영사)이다. 하랄트 밀러의 『문명의 공존』(푸른숲)을 따돌린 채 이 책이 고1 국어(상)에 홀로 들어간 것은 아무리 관련 단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추천이다. 이밖에도 수경하기 어려운 추천서가 적지 않다. 중학 1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 『유년의 뜰』(문학과지성사)의 오정희 문체가 주는 지리한 감미로움과 신경림 『민요기행』(한길사)의 뽀뽀한 기행문에 과연 쉽게 적응하고, 문장의 묘미에 빠져들 수 있을까?

중3-2학기에 살렛 브론테의 『제인에어』를 읽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도 그때쯤 그 소설을 읽었다. 하나 그 시기 읽을 만한 영문학 명작 소설이 『제인에어』 뿐인가. 살렛의 동생 에밀리가 쓴 『폭풍의 언덕』도 있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도 있지 않은가. 찰스 디킨스, 오스카 와일드, 서머셋 몸의 작품은 또 어떻고.

국사과 조선시대 부문에 추천된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일빛)은 새삼 국회의원의 사회적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 같은 부문에 있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강)는 지은이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책이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이 책의 한국어판이 나온 직후의 일이다. 전문 서평지에서 일하던 나는 『양반』의 서평자를 수소문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특히 지은이의 관점을 문제 삼아 서평 청탁을 거절한 작고한 역사학자 정석중 선생과의 전화통화가 지금껏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교과별 추천도서 목록이 지닌 적절성과 공정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요계시 차다의 『마하트마 간디』(한길사)가 아닌가 한다. 이 책은 뛰어난 간디 전기다. 다만, 본문만 847쪽에 달하는 분량이 고1이 소화하기에는 버겁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여러 권의 간디 전기 중에서 요계시 차다의 책을 추천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책을 배제할 이유가 마땅찮다. 일례로 이 책보다 3년 늦게 번역된 제프리 애쉬의 『간디 평전』(실천문학사)이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뒤질 까닭이 없다. 따라서 간디의 생애에 관한 추천도서는 함석헌 선생이 번역한 『간디 자서전』(한길사)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면,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 목록의 부적절함과 불공정함의 진원지는 어딜까? 그건 당국자의 안이함이다. 교육청이 만든 추천도서목록이 이익단체가 퍼내는 학습자료목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참고도서라면 몰라도 추천도서는 제시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래도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추천도서 목록의 구성과 공표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 당국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초중고교의 독서 교육을 위한 도서 추천에는 교사, 학부모, 사서, 출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췌록 이 지면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쓸모 있는 목록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